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추가 이벤트! 이벤트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에이조 대형 마우스 패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EIZO FlexScan EV2781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한 모니터
QHD 27" (2560x1440) | 페이퍼 모드
플리커 프리



SALE 990,000원



사용자의 눈을 최우선으로 보호
장시간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하면 눈이 쉽게
피로하고 추후 시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에이조 사용자 분들이 극찬한
눈이 편안한 모니터, 이제 그 기술을 체험하세요.

FlexScan 모니터는 까다로운 독일 인증 기관인
TÜV Rheinland의 블루 라이트, 플리커 프리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EIZO ColorEdge CS2400R

FHD 24.1" (1920x1200) | 16-bit LUT | EIZO 특허 DUE
sRGB 100% | ColorNavigator S/W



SALE 1,100,000원

NEW 신제품 "사진 스튜디오 전용 제품"



전 세계 유명 사진가, 전문가의 인정
전 세계 43인의 에이조 월드 앰버서더 중
한국 국적의 월드 앰버서더는 단 2명
권오철 작가, 김보성 교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에이조 모니터 중
컬러엣지 모니터 시리즈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맞는 최고의 모니터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에이조모니터를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EIZO ColorEdge CS2731

QHD 27" (2560 x 1440)
16-bit LUT | EIZO 특허 DUE
USB Type-C | Adobe RGB 99%
ColorNavigator S/W



SALE 1,870,000원

calibrite ColorChecker Passport Photo DUO

- 1개의 제품으로 사진+영상 촬영 모두 사용 가능
- 사진촬영, 영상촬영을 위한 휴대가 간편한 여권 사이즈 컬러 타겟
- 포토 클래식 / 비디오 클래식 / 인핸스먼트 화이트 밸런스 / 그레이 밸런스 타겟



SALE 198,000원

GITZO

모두스쿨

졸업사진 촬영부터 ~ 온라인 셀렉까지

졸업사진 촬영관리 시스템

졸업사진촬영
오토네이밍

폴더업로드
자동분류

학생셀렉
투표셀렉
행사셀렉

셀렉사진
일괄다운

학교, 학반, 학생관리

학교, 학반, 학생별로 체계적 사진 관리
학생 개인별 로그인 계정 제공

조별, 반별 사진투표

조별, 반별로 촬영한 사진은 각 학생이 투표하여 최다 득표한 사진을 사용

오토네이밍 (촬영사진 파일명 자동변경)

QR보드판 또는 스마트보드와 함께 사진 촬영
→ 오토네이밍으로 명렬표와 QR사진을 매칭
→ 파일명 자동 일괄 변경 (학반_학번_이름_.jpg)

학교관리 및 행사셀렉

교직원이 접속하는 별도의 사이트 제공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학생 셀렉 상태 확인 가능
행사사진, 교직원 사진을 선생님이 직접 셀렉 가능



QR보드



스마트보드



스튜디오 관리자

교사관리화면

학생셀렉화면

대용량 사진관리

촬영한 사진은 한번에 일괄업로드
한번에 약 2000~3000장 동시 등록 가능
사진은 각 학생에게 자동 분류

Gimbal Fluid Head

GITZO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유압식 짐벌 헤드로 야생 동물 사진 촬영 및 탐조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제품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Michele Bavassano

GHFGI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대) |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iki.co.kr

카카오톡 검색창에 "파란소프트"를 검색 후 채널추가 > 채팅하기



파란소프트



모두스쿨 상담문의

051-624-5075

www.mduschool.co.kr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샵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프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GANA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전국 최대 매장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다모아 모터스

중고차 문의 // 010 6210 3111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77호 (수원역 도보10분)



부회장 조구성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빛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사진문화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작가의 카메라 속에서 우리는 시대와 사람, 그리고 세상의 빛을 기록해 왔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입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촬영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피사체의 숨결이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바로 프로사진가의 힘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진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향한 시선”**입니다. 기계가 줄 수 없는 감동과 교감은 여전히 우리의 손끝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세미나를 확대하고, 대외 활동을 통해 한국 프로사진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에게 사진의 가치와 매력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권두언을 읽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손에 쥐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과 순간을 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기록을 넘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발행인 전병재
 발행일 2025년 8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편집국장 나영균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임병학 작가제도위원장,
 이해승 주재기자,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W 기획)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제목: 햇살처럼 웃다)

질은 남색 배경 위로 따스한 조명이 내려앉은 순간, 아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두 손을 꼭게 모은 채, 아이는 카메라가 아닌 행복을 향해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빛나는 순간을 포착한, 순수의 경수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이봉희 초대작가 프로필

1992.03.20. 아카데미 사진실 창업
 2004~2005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17대) 수원시 지부장 (역임)
 2011~2014 (사)한국프로사진협회 (29대~30대)경기도 지회장(역임)
 2009~2015 경기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 (역임)
 2015~2016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산업발전위원장 (역임)
 2016.08.22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2016~2023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2025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현)

KPPA's 협회소식

2nd FOMEX AWARDS
 한국인상사진대전 작품심사가
 8월 6일 사진협회에서 있었다.

16

권두언

7 빛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부회장 조구성

KPPA's 협회소식

10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성공적 개최 위한 준비회의 열려
 11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초대장
 13 2025년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일정표
 14 2025년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강사소개
 16 제2회 포멕스 어워드 공모전, 작품 심사 성료
 17 중국인상사진학회 방문, 아시아프로사진연맹 재논의
 19 제66회 하계국제세미나 세부 운영안 확정 박차
 20 제37대 지회장 동기모임 광주에서 단합대회 개최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

21 Kppa's 제2회 포멕스어워드 한국인상사진대전

25 Kppa's 제31회 추천작가 촬영대회

30 Kppa's 인상·순수사진작가 사/진/전

37 Kppa's EDU

37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를 통해 사진의 본질을 다시 묻다
 39 광복 80년 특별사진전 - 사진복원 스토리



48

Kppa's NEWS

41 서울지회 - 우원식 국회의장과와의 만남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초청의 순간
 44 부산지회 - 2025년 고문·자문·운영위원 연석회의 개최
 46 대구지회 - 대구야경
 48 인천지회- 인천중소기업인대회
 50 광주지회 - 광복 80년 특별 사진전 - 광복의 역사를 보다
 52 대전지회
 53 경기지회 - 제47회 경기도지회 연수대회 개최
 56 울산지회 - 제3차 운영회의 개최
 58 강원지회 - 아버지의“벨로우즈” 나의 “DSLR”
 62 충북지회 - 똑똑똑 송재봉 입니다 시즌2_2
 64 충남지회 - Pro Portrait 지면 구성에 대한 제언
 66 충북지회
 67 경남지회
 68 충남지회 - 광양시 시민단체, 함께 가꾼 해바라기 꽃밭 활짝
 70 경북지회 - 경북지회 이창희 지문, '3대 이어온 사진전' 성료
 72 제주지회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방문



53



56

75 Kppa's 발전기금

협회소식. 1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성공적 개최 위한 준비회의 열려

사진 : 이해승 주재기자
글 : 변준섭 사무처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7월 30일 오후 1시 사진회관 회의실에서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병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미나 프로그램 구성, 강사 초청 현황, 행사장 운영 계획, 홍보 전략, 참가자 등록 절차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이 점검됐다. 특히,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세미나가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기획을 보완하고, 참가자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교육·교류의 장이 되도록 다양

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전병재 회장은 “올해 세미나는 협회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에 열리는 만큼, 모든 준비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회원뿐 아니라 국내외 사진 관계자들에게 한국 프로 사진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행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협회소식. 2

초 대 장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5시
장소 : 모나 용평(리조트) 블리스힐스테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주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제 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와 연계하여
창립 7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70년의 서터, 미래를 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70년을 향한 발걸음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귀하를 뜻깊은 자리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전병재 올림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개최

2025년 8월 25일 ~ 27일 용평리조트(강원도 평창군 소재)

협찬 : **Canon** **FOMEX**

후원 : **GWTO** 강원관광재단



2025년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일정표

8월 25일(월요일)		8월 26일(화요일)		8월 27일(수요일)				
시간	강의실	마케팅강의	기술강의	기타 및 밴더	기타 및 밴더			
08시 ~ 09시	점수 기가지제 관람 행사리허설	02강 블황타파1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비법+α 강상현 강사	03강 블황타파2 차원이 다른 증명사진 김영석 작가	04강 알고계세요? 더욱 강력한 이보토 활용법 김주연 강사	12강 블황타파7 천만 시니어 시대 촬영 및 보정 천우철 작가			
09시 ~ 10시						05강 챗GPT 실전편 오종현 강사	06강 블황타파3 AI사진복원과 AI프로그램 이정훈 작가	07강 블황타파4 자산노후자금관리 새는돈 마자! 안종현 강사
10시 ~ 11시						08강 블황타파5 고객응대 및 CS교육 정다혜 강사	09강 블황타파6 스튜디오 부가수익 류수민 작가	10강 캐논카메라 활용법 윤우석 강사
11시 ~ 12시						11:00 ~ 11:30 휴식 및 기자제 관람	13:30 ~ 14:30 중 식	12:00 ~ 13:00 중 식
12시 ~ 13시						14:30 ~ 16:30 촬영 대회 주관 : 작가제도위원회	16:30 ~ 17:00 휴식 및 기자제 관람	폐강식 및 시상식
13시 ~ 14시						16:30 ~ 17:00 휴식 및 기자제 관람	17:00 ~ 18:00 행사	13강 드론 강의 14강 니콘카메라 활용법
14시 ~ 15시						18시 ~ 19시 기념 행사 그리고~ 만찬	19시 ~ 20시	
15시 ~ 16시						20시 ~ 21시		
16시 ~ 17시								
17시 ~ 18시								

* 세부내용은 교육자격위원회 및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계획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kppa.co.kr 02-454-5600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강사소개

일시 : 2025년 8월 25일 ~ 27일
 장소 : 용평리조트(강원도 평창군 소재)



강의제목: 사진 스튜디오 고객이 3배 늘어나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완벽 공략법
 강사이름: 강상현
 학습목표: 사진 스튜디오 사업자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경쟁업체 대비 차별화된 스마트 플레이스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매출 증대로 연결한다.
 실제 적용 가능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최신 기능과 성공 사례를 익혀 즉시 현장에 활용한다.



강의제목: 뭔가 다른 증명사진
 강사이름: 김영석
 학습목표: 줄어드는 증명사진의 매출을 유지 & 수요확대



강의제목: 수기없는 사진관
 강사이름: 류수민
 학습목표: 꾸준히 손님이 찾는 사진관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운영법과 고객 응대 및 관리 노하우를 익힌다.



강의제목: SNS시대의 인간관계 리더십
 강사이름: 송정화
 학습목표: -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배우고 익힌다.
 - 개인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간관계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한다.
 - 리더로서 상대방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다.



강의제목: 카메라는 셔터로, 재우는 설계로
 강사이름: 안종현
 학습목표: 사진작가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에 맞춘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과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학습한다.



강의제목: AI로 하는 쉬운 마케팅
 강사이름: 오종현 (감자나라ai)
 학습목표: - 생성형AI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 마케팅에 사용할 무료 AI 서비스 사용법 이해
 - 마케팅에 사용할 프롬프트 구성, 활용하기
 - 실전 마케팅에 적용하기



강의제목: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한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설정
 강사이름: 윤우석
 학습목표: 인물 사진 촬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강의제목: Evoto AI 새로운 기능 소개 및 전문가를 위한 촬영부터 보정까지 올인원 워크플로우 구축
 강사이름: 김주연 마케터



강의제목: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진복원 프로그램
 강사이름: 이정훈
 학습목표: <https://replicate.com/explore>의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강의제목: "고객응대, 품격을 지키는 스마트한 실전 소통법"
 - 고객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얻는 말하기 기술 -
 강사이름: 정다혜
 학습목표: - 고객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대화법 습득
 - 거절도 예의 있게, 감정 상하지 않게 소통하는 방법 훈련
 - 대표님이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는 '응대력'을 기르는 것



강의제목: 고령화시대, 시니어 사진 시장의 기회
 강사이름: 천우철
 학습목표: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니어 사진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이유를 이해한다.
 - 영정사진과 시니어 프로필 사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현대적 접근방식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습득한다

협회소식 4

제2회 포맥스 어워드 공모전, 작품 심사 성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주관, 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 위촉장 전달 후 기념사진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전병재)가 주최한 제2회 포맥스 어워드 공모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2025년 8월 6일(수) 오후 1시 협회 회의실에서 본선 작품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는 사진과 영상기자재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4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심사위원으로는 지홍민 이사(포맥스), 조창수 회장(한국사진영상기자재협회), 정승택 프로(캐논코리아), 이창준 매니저(니콘이미징코리아), 임병학 제도위원장((사)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총 5인이 참여하였다.

심사에 앞서 전병재 회장은 위 네 명의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 위촉장을 전달하며 “포맥스 어워드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진 콘텐츠 발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회의실에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수많은 인물사진과 창작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심사위원들은 꼼꼼하게 한 작품씩 확인하며 진지한 평가 과정을 이어갔다.

이번 포맥스 어워드는 협회의 창의적 사진문화 진흥을 목표로 한 행사로, 수상작은 향후 전시 및 협회 공식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와 수상작 발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추후 공지된다.

협회소식 5

중국인상사진학회 방문, 아시아프로사진연맹 재논의

제41회 중국국제웨딩사진전 참관

글과 사진: 변준섭 사무처장



▲ 중국국제웨딩사진전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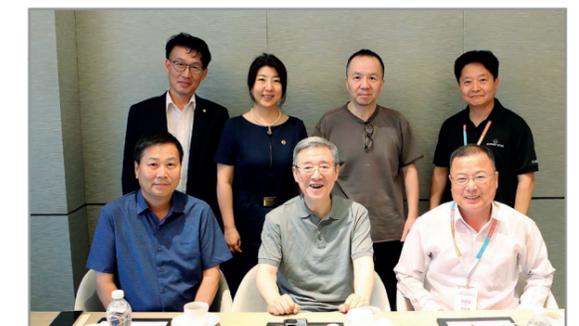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중국인상사진학회(회장 왕슈케)의 초청으로 제41회 중국국제웨딩사진전(China Wedding Expo)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중국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됐다.

중국인상사진학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전시 면적 8만㎡ 규모로, 400여 개 브랜드와 업체, 5만여 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웨딩·사진 산업 박람회다.

전시장에는 웨딩 촬영 장비, 조명 시스템, 촬영 소품,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스타일링, 스튜디오 인테리어, 후반작업 소프트웨어, 여행 웨딩 패키지 등 웨딩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선보였다. 또한, 업계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는 세미나, 신제품 발표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현장을 찾은 바이어와 전문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최 측은 “중국국제웨딩사진전은 웨딩 및 사진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웨딩·사진 산업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인상사진학회 임직원과 함께



▲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왼쪽) 세 번째 안타이창 고문, 네 번째 왕슈케 회장

프로사진세미나가 아시아 각국 사진가들이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훌륭한 장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행사에 직접 참석해 교류와 우정을 더욱 깊게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은 “세계 각국의 사진가와 웨딩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작품,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이 자리는,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한다며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사진문화와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제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회장은 “이번 중국국제웨딩사진전이야말로 그 교류의 장이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더 긴밀히 협력하여, 사진과 웨딩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행들과 함께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이번 참가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사진 산업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협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이만식 부회장, 정대홍 총무위원장, 변준섭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박람회참관



▲ 중국인상사진학회 왕슈케 회장과 함께



▲ 전시장에서 기념촬영

교육자격위원회 온라인 회의

제66회 하계국제세미나 세부 운영안 확정 박차

취재 : 류수민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교육자격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7월 10일(목) 오후 8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창에서 열리는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오프닝 강의 준비 및 세미나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 이영진을 비롯해 김희덕 이사, 이대원 이사, 연원석 이사, 강민정 위원, 김선아 위원, 김영석 위원, 김혁상 위원, 류수민 위원, 박해승 위원, 안수민 위원, 유현수 위원, 운영 위원, 이은주 위원, 이정훈 위원, 전희정 위원, 정원진 위원, 허재준 위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강의의 운영 방식과 강사 구성, 참가자 참여 유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자를 교육위원, 동문회, 협회 인사 등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팀장들과 함께 추천 리스트를 미리 구성하기로 했다. 오프닝 강의는 위원장 이영진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질문이 중복되거나

논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당일 오후 1시 30분까지 참석자 전원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진의 숙소 문제와 교육위원 식사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위원들 간의 단합 시간을 마련하되, 단순한 술자리에 그치지 않고 게임 등의 활동을 병행해 유대감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위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세미나 운영에 임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에 열릴 세미나 리허설(최종 온라인 회의)을 통해 전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37대 지회장 동기모임 광주에서 단합대회 개최

기간우정과소통의 시간 가져

글 : 제37대 지회장 동기회 회장 홍석례



한국프로사진협회 제37대 동기회(회장 홍석례)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회원 간 소통과 우의를 다졌다.

이번 모임에는 전북 남영우, 광주 홍석례, 전남 이영익, 울산 김하영, 충북 장대진, 대전 이승호, 제주 전성환, 경북 최완식, 인천 정태민 등 전국 각지의 동기회원들이 참여해 우정을 나눴다. 부산 정대홍, 충남 김우형, 경남 전병길 회원은 다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6월 28일 첫날, 제주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전성환 회원을 공항에 마중 나가고, 각지에서 오는 회원들을 기차역에서 맞이하는 등 손님맞이의 설렘으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먼저 도착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담양 소재원을 방문하여 자연과 조화된 대봉대, 광풍각 등의 건축물을 감상하며 옛 선비들의 풍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재원은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 제40호로,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었으며, 경관의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문화유산의 보배로 잘 알려져 있다.

힐링의 시간을 마친 회원들은 숙소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 장소인 광산식당으로 향했다. 남도 음식의 특색을 담은 풍성한 어머니 밥상에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고, 특히 38대 문달순 지회장의 깜짝 환영 방문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에게 큰 선물과 같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온 회원들은 준비해온 다과를 나누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협회 발전에 대한 토론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회원 수 감소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고민하며 긍정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튿날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무등산을 등반하며 회장의 안내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원효사 카페에서 차담을 나누며 땀을 식히고 여유로운 오전을 보냈다.

마지막 일정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하늘가득'에서의 점심 식사였다. 맛있는 식사 후에는 한돈 삼겹살과 황토 바비큐 요리가 포함된 푸짐한 선물이 회원들에게 전달되며 볼거리가 풍성한 남도여행에 따뜻한 여운까지 더해졌다.

홍석례 회장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쉽고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비록 사진으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회원들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 멀고 바쁘지만, 이 모임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단순한 여행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광주 단합대회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회원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기회원들은 내년에도 함께할 시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제 2 회 포맥스 어워드 한국인상사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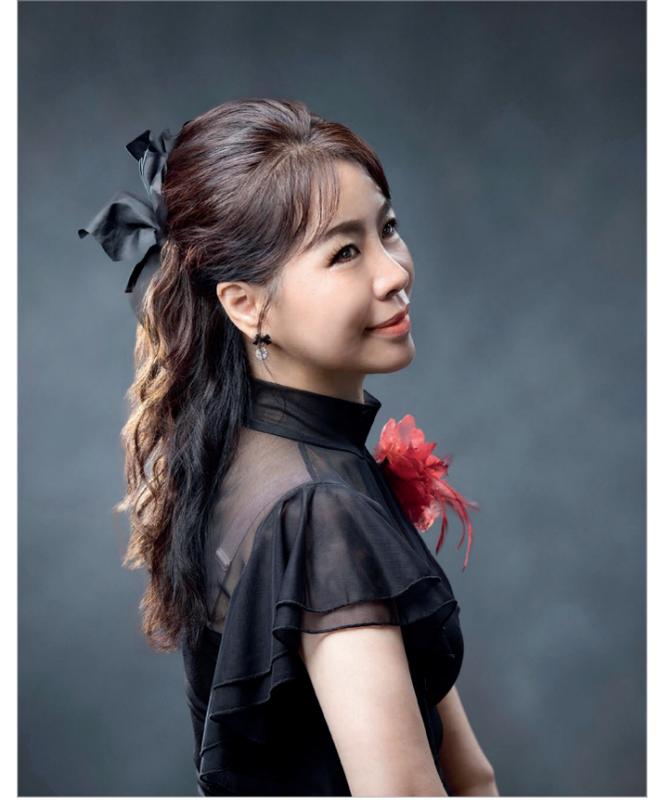
이 봉 희 작가



햇살처럼 웃다



정 대 흥 작가



작가의집 여인



박 응 태 작가



나만의 방식



김 선 식 작가



미소



안재철 작가



한복의 아름다움



이정훈 작가



무대 위의 바람



4월 26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촬영대회 모습

제31회 추천작가촬영대회 공모전

작품심사 : 2025년 7월 28일 사진회관

심사위원장 : 이한우

심사위원 : 이경우, 이희춘, 정세화, 임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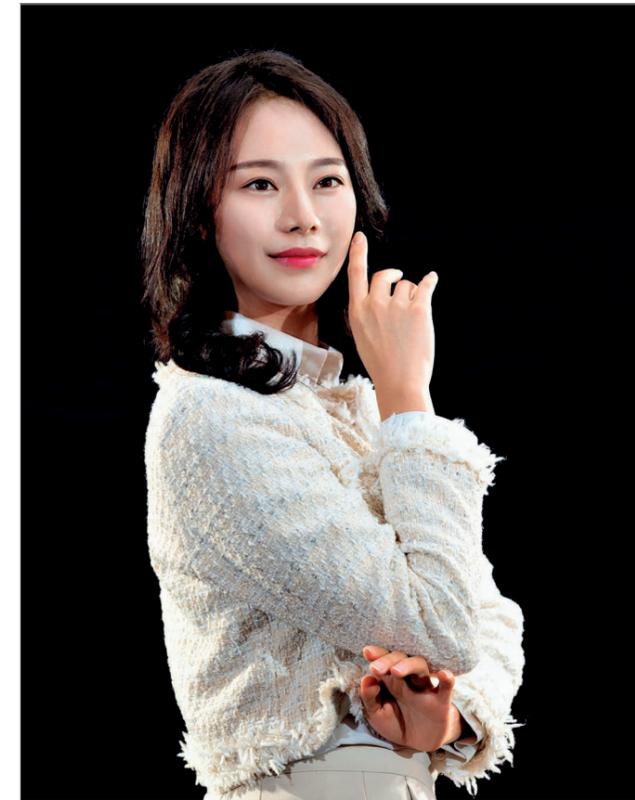
이 병 덕 작가



춘심



박 남 국 작가



여인의 손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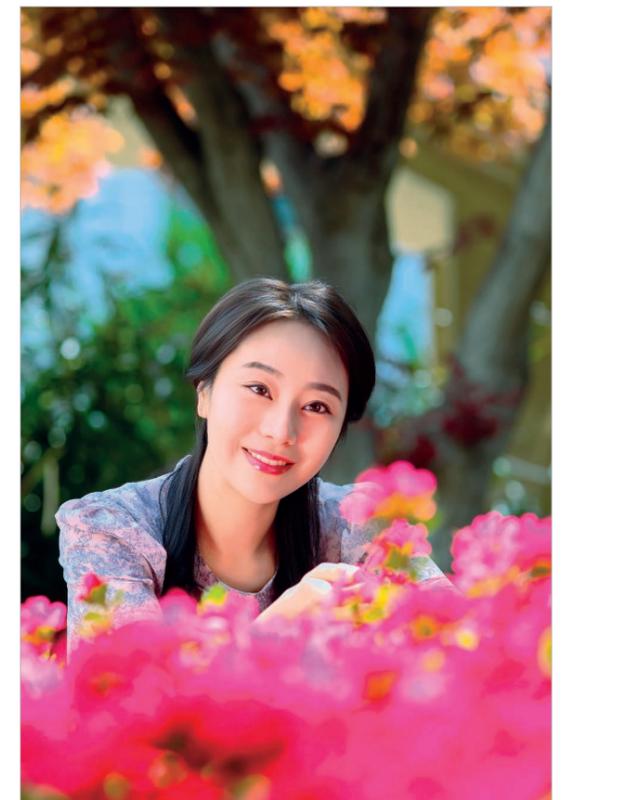
강 행 림 작가



나 어때요~~



나 영 균 작가



꽃이 머문 얼굴



박진우 작가



야호



강석민 작가



포즈



이성열 작가



포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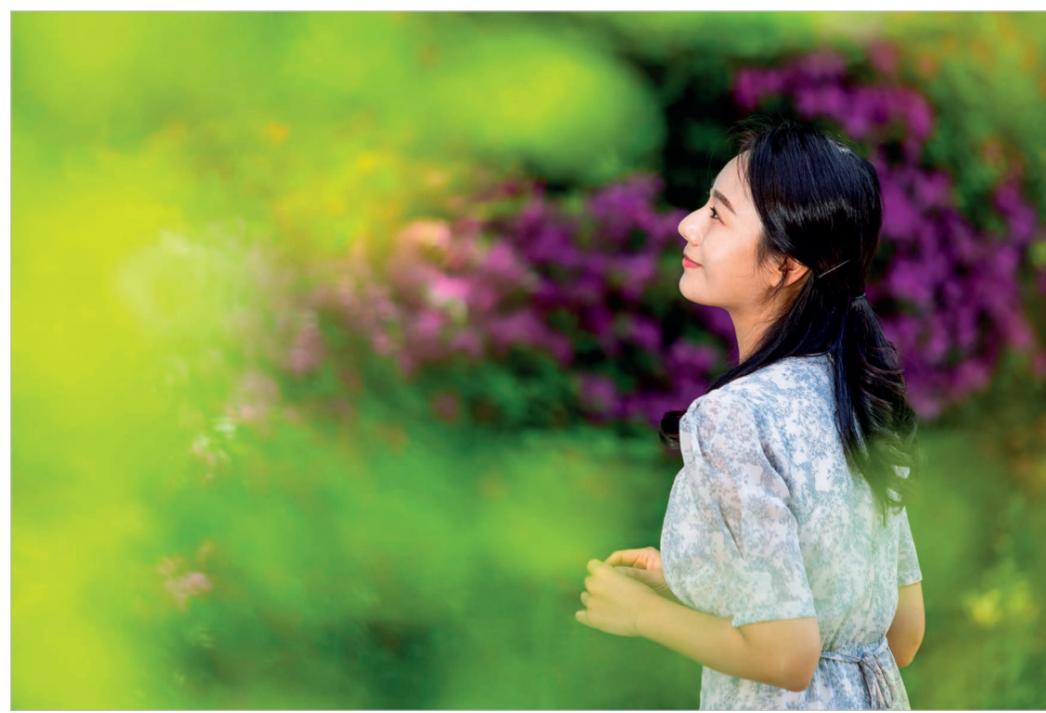


KPPA
인상 · 순수사진작가
사진/전
2025.8.1~8.31

주최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주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 제 목 : 유혹
▪ 작 가 : 고창문 작가



▪ 제 목 : 봄
▪ 작 가 : 김현호 작가



- 제목 : 침묵의 카리스마
- 작가 : 나영균 작가



- 제목 : 호로고루성
- 작가 : 이동기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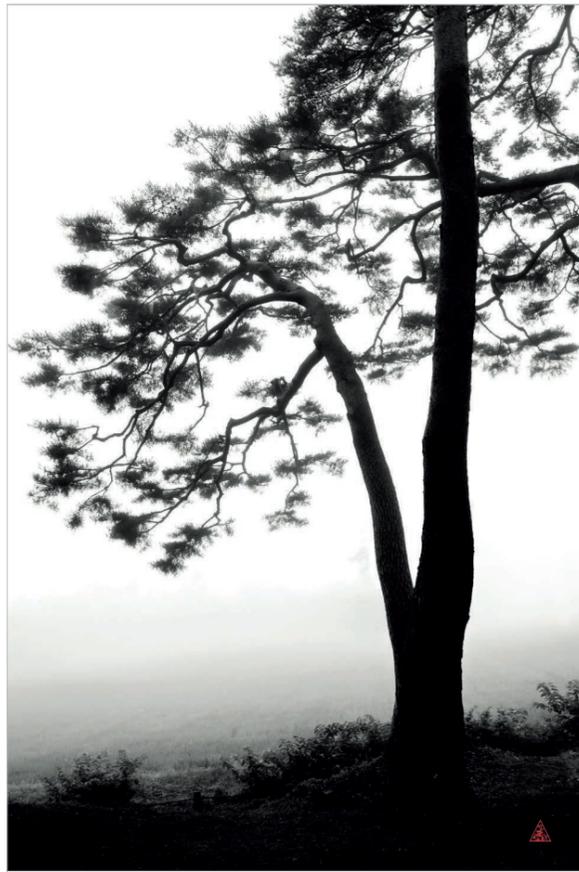
- 제목 : 왕비의 미소
- 작가 : 박남국 작가



- 제목 : 선사의 아침
- 작가 : 이병기 작가



▪ 제 목 : 갈매기
 ▪ 작 가 : 이병덕 작가



▪ 제 목 : 낙소나무
 ▪ 작 가 : 이용일 작가



▪ 제 목 : 손짓
 ▪ 작 가 : 이한우 작가



▪ 제 목 : 포즈
 ▪ 작 가 : 이 흥 작가



- 제목 : 대관령 고랭지 배추
- 작가 : 최용수 작가



- 제목 : 독섬해객적HH
- 작가 : 한권일 작가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를 통해 사진의 본질을 다시 묻다

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 이규열 교육정보차장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는 사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가장 깊이 있게 풀어낸 고전으로, 단순한 사진 이론서라기보다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인간 존재의 차원에서 탐구한 작품이다. 이 책은 바르트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사진 속에서 사랑, 상실, 기억,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나아가 사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헤아려보게 한다. 바르트는 사진을 단순히 시각적 재현이 아닌,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독특한 매체로 규정하며, 사진을 보는 사람과 찍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들어와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경험을 말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는 이에게만 유일하게 다가와 마음을 흔드는 ‘찡림’의 순간이다. 바르트에게 폰크툼은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리는 본질적인 힘이며,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의 깊은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르트가 말하는 사진의 본질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힘이다. 사진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붙잡는 매체이며, 셔터를 누른 순간 그 대상이 ‘그때, 그곳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증언한다. 바르트에게 사진은 사랑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매체였다.

1. <카메라 루시다>의 핵심 개념 요약

이 책에서 바르트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튜디오’와 ‘폰크툼’ 그리고 ‘존재했음’이다. 스튜디오는 우리가 사진을 바라보며 일반적으로 느끼는 교양적 관심, 즉 사진 속 시대적 배경, 문화, 구성, 주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차원이다. 스튜디오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맥락을 통해 사진을 읽는 영역이며, 우리가 사진을 ‘배우고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보도사진을 볼 때 느끼는 정보적, 사회적 관심이 바로 스튜디오이다.

반면 폰크툼은 훨씬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이다. 사진을 바라볼 때 특정한 한 요소가 갑작스럽게 마음을 찌르고

2. 사진가의 입장에서 재해석

사진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책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촬영의 본질을 되묻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진을 기술적인 완성도나 시각적 아름다움으로만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바르트는 사진의 가치를 그 너머에서 찾는다. 그는 사진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폰크툼을 담아내야 비로소 ‘살아 있는 이미지’가 된다고 말한다.

사진가로서 이 메시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피사체의 '모습'을 찍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는가? 스튜디오 조명, 구도, 색감은 스튜디오의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진이 깊은 울림을 주기 어렵다. 폰크툼은 계획해서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사진가가 피사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려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결국 사진은 대상이 가진 진실한 순간, 가장 '그 사람다운' 표정을 포착할 때 생명을 얻는다.

이 책에서는 사진가로 하여금 셔터를 누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찍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포즈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존재가 진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포착하는 것, 이것이 사진가가 남겨야 할 진정한 기록임을 일깨워준다.

3. 실제 작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진가로서 (카메라 루시다)를 통해 실제 작업에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사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남기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지닌 분위기와 시간을 증명하는 행위다. 피사체의 외모나 표정만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사진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바르트가 강조한 '폰크툼'을 사진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진가가 완벽한 구도와 포즈를 계획하고 조정하려 할수록 피사체의 생생한 본질은 갇혀버린다. 대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눈빛, 손끝의 떨림,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작은

흔들림이 사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폰크툼이 된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촬영 현장에서 생겨나는 우연의 힘이며, 진정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마지막으로 사진이 '존재했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사진가에게 깊은 책임감을 부여한다. 사진은 단순히 그 순간을 기록하는 행위 같지만, 사실상 시간 속에서 사라질 존재를 붙잡아 두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사진만이 그 존재를 증명한다. 사진가가 이 감각을 잊지 않고 셔터를 누를 때, 사진은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의 울림을 가진다.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순간이 정말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생생히 느끼게 하는 힘이다.

바르트는 사진의 본질이 단순히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와 시간, 감각의 기록에 있다고 말한다. 사진가는 피사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스튜디오를 넘어 폰크툼이 스며들 여백을 허용하며,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을 때 비로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삶의 진실한 흔적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보는 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다.

4. 사진가에게 주는 한 줄 요약

“사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한순간의 떨림을 포착하는 예술이다.”

(카메라 루시다)는 사진이 단순히 보이는 모습을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존재했음'을 증언하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폰크툼을 남길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예술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7월 주제 신문자료 스캔

자료출처: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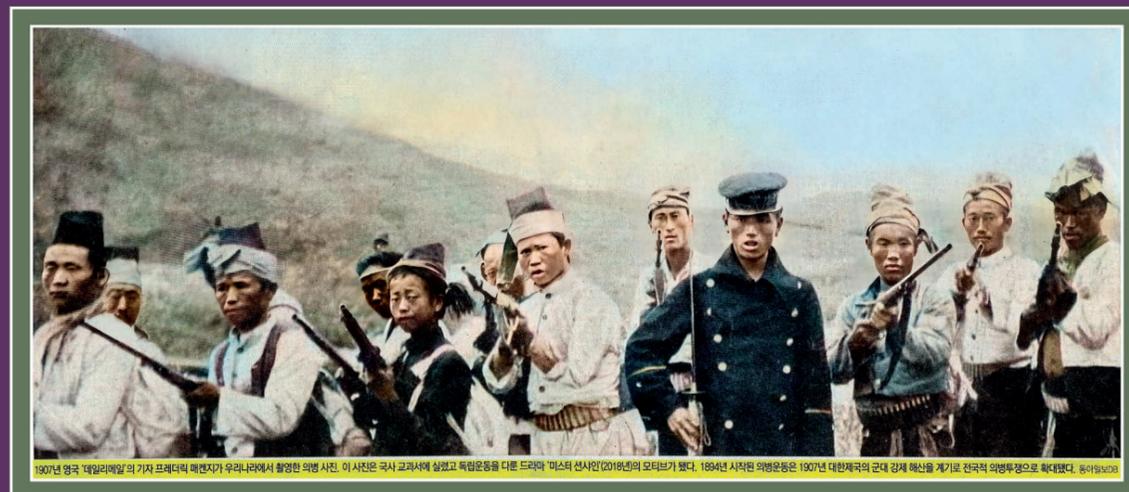


1907년 영국 '데일리메일'의 기자 프레더릭 매켄지가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의병 사진. 이 사진은 국사 교과서에 실렸고 독립운동을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년)의 모티브가 됐다. 1894년 시작된 의병운동은 1907년 대한제국의 강제 해산을 계기로 전국적 의병투쟁으로 확대됐다. 동아일보DB

광복 80년 특별사진전

사진복원 스토리

원본



1907년 영국 '데일리메일'의 기자 프레더릭 매켄지가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의병 사진. 이 사진은 국사 교과서에 실렸고 독립운동을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년)의 모티브가 됐다. 1894년 시작된 의병운동은 1907년 대한제국의 강제 해산을 계기로 전국적 의병투쟁으로 확대됐다. 동아일보DB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지요.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은 1907년 영국의 데일리 매일신문사 매켄지 기자의 열악한 환경과 형편없는 무기로 저항하는 의병들에게 무모한 전쟁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을 입고 허리엔 집에서 만든 무명의 탄대가 매달려 있고 탄환이 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누더기를 꼬아 만든 머리띠를 한 차림으로 10여세부터 30대 후반인 이들은 1907년 고종의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 강제 군대해산에 대한해 의병활동에 나선 이들을 외국기자가 포착한 내용으로 당시의상황을 사진1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리며 쓰러져간 투쟁의 역사를 거쳐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필자는 역사사진을 준비하면서 3회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신문자료 원고로 적절한 시 적용과 당시의 시대배경을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채색으로 마감하면 될 것입니다.



김충식
사진병원 대표

사진병원 제공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서울지회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초청의 순간

글, 사진: 기획위원장 나영균

지난 8월 3일(일) 저녁, 비가 내리던 중계근린공원 입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현장 민원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던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정치의 중립성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의장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프로사진세미나(2025년 8월 25일~27일, 용평리조트)의 공식 초대장을 직접 전달 드리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전병재)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사진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 역시 그 일환으로, 예술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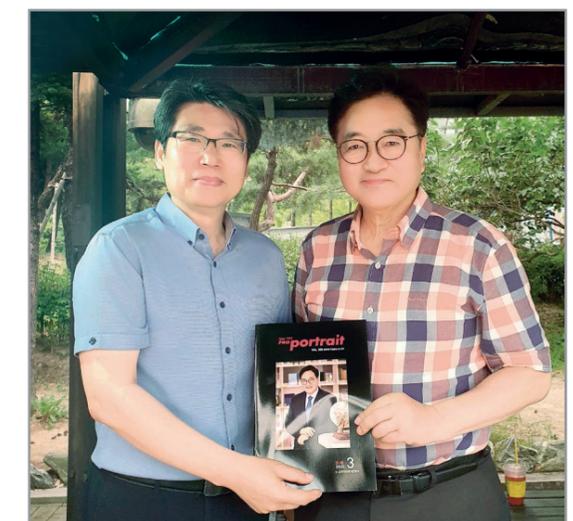
우 의장님께는 행사 취지와 세부 일정에 대해 직접 말씀드렸고, 과거 협회 40대 회장 이·취임식 당시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사가 실린 월간지 「프로포트레이트」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진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당 호의 표지에는 우 의장님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잡지를 받아든 의장님께서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잡지를 들고 기념사진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우 의장님은 예정보다 앞서 도착해, 기다리고 계신 주민들과 일일이 상담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 촬영 요청에도 밝게 응해주시는 모습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지 초청장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자리를 넘어, 정치의 본질과 지역 사회를 향한 진심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민심 존중, 그리고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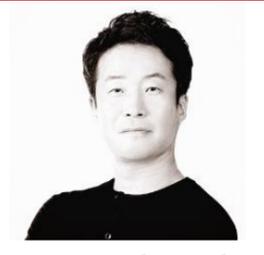
대전/세종/충청 총판

EOS M50 II	EOS M50 II	EOS M50 II	EOS M50 II
EOS R50	EOS R50	EOS R50	EOS R50
EOS R10	EOS R10	EOS R10	EOS R10
EOS R7	EOS R7	EOS R7	EOS R7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회원들



2025년 고문·자문·운영위원 연석회의 개최

취재: 부산지회 주재기자 강영동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지회장 박재영)는 지난 7월 21일(월) 오후 5시, 초원농원 양정점에서 2025년 고문·자문·운영위원 연석회의(이하 고·자문 연석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영 지회장을 비롯해 고문, 자문, 운영위원,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이광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용주 명예지회장이 내빈을 소개한 뒤 박재영 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박 지회장은 “고문·자문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부산지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진 공지사항에서는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연수대회를 비롯하여 향후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음을 알리고, 고·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는 참석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윤하 고·자문회 회장은 “이처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으며, 이재욱 고문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회가 창의성과 경쟁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또한 정대홍 고문은 “올해 협회 총무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한국프로사진협회가 70주년을 맞는 만큼 8월에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도 부산지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고·자문 연석회의는 풍성한 식사와 함께 고문 및 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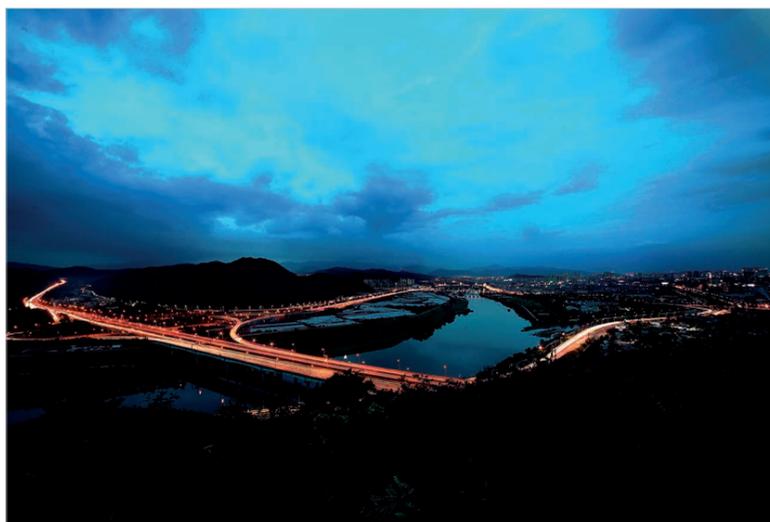


대구야경

온 나라가 들썩거려도 평온하기 짝이 없다
 축복 받은 땅이라 해야하나
 적어도 풍수 재해는 잘도 피한 것 같다
 몇발짝 더 나가면 이웃 우리들의 고향은 속대 발인데
 이기만 속 빼놓은 것 자랑도 못 하겠다
 한밤의 야경은 분주한 듯 조용하기 이를 때 없다
 저 멀리 대구의 상징
 이랜드 타운이 우뚝솟아 한껏 두르번거린다



▪ 제 목 : 선별



▪ 제 목 : 금회C의 러시아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구지회 회원들



인천중소기업인대회

글, 사진: 인천지회 주재기자 홍춘석



2025년 7월 2일 인천중소기업인대회가 하보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인천중소기업인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황현배)님으로부터 정태민(본협회 부회장) 그리운미소 대표가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표창은 인천의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업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인천지회의 큰 자랑이라 할수 있다.

그리운미소 정태민 대표는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이며, 인천지회 고문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 사진인을 위한 사진진흥법 재정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며, 협회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정태민 부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지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정태민 부회장의 인천중소기업인대회 표창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지회 회원들



광복 80년 특별 사진전 - 광복의 역사를 보다

- 사진 복원으로 되살아난 독립의 숨결 -

문의: 김충식 사진복원 명인 (010-6611-5606)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소속 김충식 사진 복원 명인이 주관하는 「광복 80년 특별 사진전 - 광복의 역사를 보다」 사진전이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의 독립운동 현장을 담은 희귀 자료와 사진을 디지털 복원해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다.

광복의 역사를 사진으로 복원하다

이번 전시는 1907년 영국의 <데일리 메일> 기자 F.M. 메켄지가 촬영한 의병 항일투쟁 장면,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 기념사진, 개항기 육조거리 전경, 안중근 의사 초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보인다.

모든 사진은 훼손된 원본을 정밀 복원하고 색채를 재현해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채색·디지털 복원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역사와 현재를 잇는 의미

김충식 명인은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자유를 향해 싸운 이름 없는 의병들의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다”며 “광복의 발자취를 되짚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단합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시 개요

- 전시명 : 광복 80년 특별 사진전 - 광복의 역사를 보다
- 기 간 : 2025년 8월 12일(화) ~ 8월 18일(월)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1층 전시장
- 주 관 : 사진병원
- 후 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대동문화재단, 광복회 광주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회원들



대전지회뉴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전지회 회원들



경기지회뉴스

제47회 경기도지회 연수대회 개최

글, 사진: 경기지회 주재기자 김영철



제47회 경기도지회 연수대회가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경기도 신안산대학교 국제관에서 많은 내외빈과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전 행사의 시작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으로 케논 카메라의 미러리스교육(강사 이승호)에서는 촬영에 최적화 하는 "FV플렉시블" 모드 활용과 인물 눈 초점 설정 및 화이트 밸런스(AWB/W), 무소음셔터, 노출시뮬레이션, 컨트롤링을 이용한 노출보정 등 전문가들이 실전에서 필요한 미러리스 기능의 활용법을 강의하였고 EVOTO 교육(강사 김은우 마케터)에서는 인물 인식 오류와 마스크를 활용한 수동 보정법, AI 기반 보정 기능, 증명사진 크롭과 같은 특화 기능, 또한 프리셋 저장과 옵션, 환경 설정 팁까지 실제 활용 중심의 기능을 안내하였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지회와 수원플란치과의 MOU 체결식이 있었다. 개회식은 김남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진선 명예지회장의 내외빈소개를 시작으로 대회사에서 이정주 경기도지회장은 이번 연수 개요를 소개하고 늘 사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하였고 전병재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연수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고 인적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며 오는 8월 개최되는 제66회 국제 프로사진 세미나는 우리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도 기획되어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 였다.

이어서 박수열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과 자매지회인 울산광역시 안성현 지회장의 축사와 함께 격려금, 축의금,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이한우(성남), 최문성(군포) 회원이 협회장 표창을, 강성훈(오평), 황추연(수원), 신동영(안양) 회원이 지회장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2024 경기지회 촬영대회 결과 시상에서는 김종호 회원의 금상 수상을 포함 12명의 시상식이 있었다.

오전 행사를 마친 후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푸짐한 닭백숙이 제공되었고 오후 행사인 촬영대회에서는 이희춘, 이한우 작가의 연출과 지도하에 모델 촬영이 있었는데 오랜만의 촬영대회인 탓 인지 초록 잔디밭 위 회원들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경품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연수대회를 잘 마무리 하였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회원들



제3차 운영회의 개최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연수대회 결산 및 국제세미나 준비 본격화]

글과 사진: 김종운 주재기자



울산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안성현)는 지난 7월 2일(수) 울산 신정동 안성식당에서 제3차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상반기 연수대회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영희 고문의 격려 인사로 시작되었으며, 5월 25일에 경남하동에서 개최된 연수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유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수대회를 통해 드러난 조직력과 회원 간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서 오는 8월 평창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66회국제프로

사진세미나'와 '한국프로사진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관련해, 울산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 논의됐다. 교통 및 숙박 지원, 사전 신청 독려 등 실질적인 참여 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됐다.

안성현 지회장은 "이번 연수대회를 통해 울산지회의 단합과 소통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국제세미나에서도 지회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회는 하반기에도 회원 간 교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사진문화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지회 회원들



강원지회뉴스

국립민속박물관에 발간자료 • 한국의 사진관책에서 발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지부 백우사진관 김광수, (현 강원인쇄앨범협동조합 이사장)
글: 유동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원) • 사진: 선유민

1. 아버지의 “벨로우즈” 나의 “DSLR”

1944년 “백우사진관 개업” 강원도 횡성군 황성읍 삼일로 8에 위치

황성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오래된 사진관으로, 2대에 걸쳐 운영중이다.

광복 이전인 1944년부터 현 백우사진관이 김광수의 부친 김종만님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처음 개업할 당시 사진관의 이름은 ‘백우사장’으로, 옛날에 사장寫場은 사진관을 뜻하는 단어였다. 백우白友라는 뜻은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우사진관의 현 사장인 김광수의 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호를 바꾸지 않은 사진관 중 가장 오래된 사진관이라고 한다.

2024년 현재 백우사진관은 횡성읍내의 시장근처, 삼일광장 교차로 북쪽에 있는 농협은행 맞은편 건물에 있다. 원래 백우 사진관은 횡성군청의 동쪽 주차장에 있었다.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1958년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다. 현재 사진관이 위치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은 1979년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이 사진관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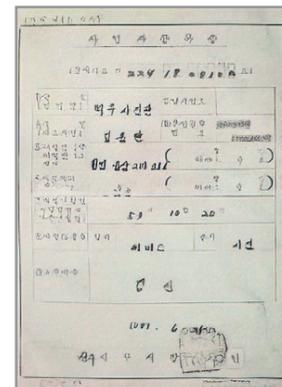


2. 사진관의 역사와 사진사의 생애사

- 부친 김종만의 백우사진관 개업과 운영

백우사진관은 현 사장인 김광수의 아버지인 김종만이 개업한 횡성의 사진관이다.

김종만은 1922년에 태어나 신성사진관에서 근무하면서 사진사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백우사진관 사업자등록증



부친 김종만의 벨로우즈 카메라

김종만은 신성사진관에서 근무 하기 전부터 통신 강의를 통해 사진 기술을 독학하였다.

김종만은 일본어로 방송되는 라디오를 통해 통신 강의를 수강하였고, 춘천 같은 주변의 도시나 멀리 떨어진 서울까지 오가며 사진 재료를 구하는 등 사진 기술을 독학하였다.

1930년대 당시 통신강의가 상당히 보급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9년도에 동업자의 투자를 받아 함께 신성사진관을 개업하였다. 현재 신성사진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광복 이전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라는 직업은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특별한 기술자라는 것을 의미했다.

약 5년간 신성사진관에서 사업자금을 모아 1944년 현재 횡성군청 민원실 앞 주차장 위치에 백우사진관을 개업하였다.

김종만은 막내동생과 함께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6.25 전쟁의 발발로 충주로 피난을 갔다. 전쟁으로 인해 기존 횡성군청 주차장 자리에 있던 사진관 건물이 파손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김광수사장님의 회고에 따르면 국군이 38선을 돌파했던 1950년 10월 1일부터 1951년 1·4 휴전 사이에 횡성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김광수의 생애와 백우사진관

현 백우사진관의 사장, 김광수는 4남매 중 막내로 1955년에 태어났다. 형이 한 명 더 있었지만, 6.25 전쟁 당시 사망하였다고 한다.

김광수는 아버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고지식했던 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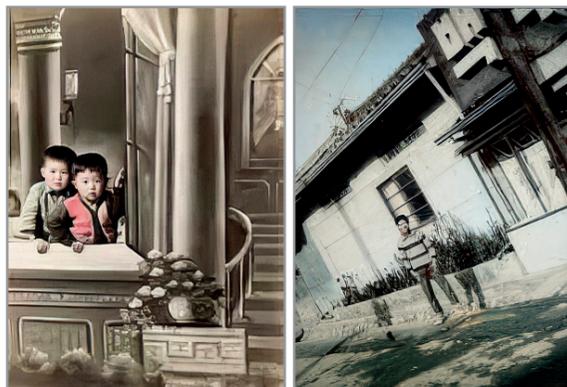
아버지와 함께 백우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전담하는 등 20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들 중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때문에 아버지 김종만은 김광수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굉장히 엄하셨어요. 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저 또 야단 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야단 안 쳐’ 이라고 웃으시고 저한테 그때 임종하시기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김광수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용한 시기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기였다. 당시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김광수가 어린시절사용 머큐리사의 카메라



어린시절 사진관에서 찍은사진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렇게 촬영한 필름은 백우사진관에서 인화하고, 이를 친구들 에게 판매하여 용돈벌이를 하였다. 당시 사용하였던 카메라는 머큐리사의 카메라였다. 카메라의 사용법은 당시 백우사진관의 사진기사들로부터 배웠다. 김광수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업으로 삼은 것은 군 전역 이후였다. 출장 촬영과 필름 판매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사진관이 유망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김광수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진관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진관과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정하였고, 본격적으로 사진사로 활동하였다.



현 모습



벨로우즈카메라



작업모습



삼각대

1979년에 이르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백우사진관의 직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사진사들이었다. 연중무휴로 출장과 80년대 신혼예식장과, 원양예식장 2곳의 예식장과 사진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활황이었던 사진관은 2000년대부터 도입된 디지털카메라로 인해 점차 변화를 맞이하였다. 2006~2014년대에는 문화원장직을 겸하고 봉사하며 퇴임시 문화체육부장관 공로패도 수상하였다. 2023년에 작품활동의 일환으로 초대작가·인상작가라는 이력을 살려 횡성군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강원도 학교앨범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사진관을 운영함에 있어 포토샵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보토 evoto라는 인공지능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 나오는 기계나 장비에 계속 투자 할 것이라 하였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강원지회 회원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시즌2_2

시 간: 2025년 7월 24일(목) 오후 1시30분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73-5 혜성사진관

인터뷰: 문호영 (사진작가, 청주에서 태어나 중부대 사진영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아버지가 운영하던 혜성사진관 운영)

사진: 김기엽 홍보IT위원
글: 변준섭 사무처장

1.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 자연스럽게 혜성사진관 이야기 (어릴 적 내덕동 풍경 등)
- 아버지의 혜성사진관과 문호영의 혜성사진관 (변한 것, 변하지 않은 것)

2.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

- 주민으로서 느끼는 원도심의 변화
- 작가로서 보는 피사체로서 원도심의 의미
- 공통점, 차이점, 잃은 것들, 지켜야 할 것들 등



3. 사진작가로서 이야기

- 자연, 골목 풍경 등 일상적 사진에서 원흥이방죽, 노근리 등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 현재 진행 중인 작업, 활동 등 소개

4. 향후 계획

- 사진작가로서 작품 활동
- 사진 박물관에 대한 꿈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북지회 회원들



Pro Portrait 지면 구성에 대한 제언



글쓴이 : 협회 자문 김우형

Pro Portrait의 위상은 단순한 일개 단체 회보지로 작게 평가 받을 월간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진사의 흐름을 말할 때, 70년 가까이 쉼 없이 이어져 온 우리 협회의 회보만큼 꾸준하고 생생한 증인은 없습니다.

1955년 '사련회보(寫聯會報)'로 첫 발을 내디딘 뒤 1965년 광영(光影), 1969년 P.A. Life(寫真藝術), 1971년 영사 뉴스(營寫뉴스), 1977년 사단(寫壇)을 거쳐 2006년 Pro Portrait에 이르기까지, 이 회보는 시대 변화에 맞춰 사진인을 위한 대표 정보매체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5년 12월 100호, 1994년 4월 200호, 2002년 8월 300호, 2010년 12월 400호, 2019년 8월 500호 발간. Pro Portrait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우리 협회의 기록 유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면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지회에 협조 공문 한 장을 보내고, 회신이 미흡한 지회는 '공란'으로 처리해 지면을 채우는 방식은, 1955년 창간 이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어 온 월간지의 품격과 영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모든 지면 매체에서 공란은 편집장 스스로를 무능함이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Pro Portrait에 실어도 되는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물 소개가 각 지회에 있는 회원을 소개하라는 건지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공문은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지회가 단순히 관광안내를 하게 될 것입

니다. 사진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프로 사진인들에게 협회 소식과 사진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다루는 월간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일관된 편집 철학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이 점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편집 책임 체계의 공백입니다. 홍보위원장 부재는 집행부의 관리 소홀을 넘어 무능에까지 이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지면의 공백을 각 지회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 운영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보는 '취합'이 아니라 '편집'과 '기획'의 산물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편집 체계 없이는 독자(전국 사진인과 업계 종사자)를 만족시키는 전문 매체로 설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구·제안합니다.

- 1) 의사결정 공개 : 지면 운영 방식을 이처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2) 편집 책임 복원 : 홍보위원장(편집장)을 즉시 선임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기획 - 취재 - 교열의 기본 프로세스를 정상화하십시오.
- 3) 지면 원칙 확립 : 독자 정의(프로 사진가 중심), 핵심 섹션(협회 소식·현장 리포트·교육/기술·정책/법제·회원 작품·지회 소식), 광고·관광 정보의 분리(AD/부록 페이지) 등 편집 가이드를 문서화하십시오.
- 4) 원고 청탁의 표준화: 분기별 기획표와 마감 공지, 원고 분량·형식·원고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란 편집'을 근절하십시오.
- 5) 공식 답변 요구: 이 네가지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구두가 아닌 다음달 Pro Portrait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 Portrait는 우리 사진계의 얼굴이며, 후대에 남길 기록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채우기 위한 지면이 아니라, 편집 철학과 책임입니다. 협회가 매체의 품격을 회복하고 독자가 신뢰하는 월간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회원들



전북지회뉴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북지회 회원들



경남지회뉴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남지회 회원들



광양시 시민단체, 함께 가꾼 해바라기 꽃밭 활짝

광양시의 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가꾸온 해바라기 꽃밭이 만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해바라기 꽃밭은 지역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었으며, 단순한 경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화합과 환경 가꾸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더운 여름 햇볕 아래 노랗게 물든 해바라기들은 광양을 찾는 이들에게 포토존이자 휴식 공간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작은 행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광양시 시민단체 단체가 조성하여 가꾼 해바라기 꽃 풍경입니다



- 심준섭 사진작가 프로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위원장(전)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심사위원장
- 여수시 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상
- 한국사진대전 입선
- 전라남도전 입선
- 한국해양재단 사진대전 대상
- 2024 여수관광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광양시 해바라기 풍경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남지회 회원들



경북지회 이창희 자문, '3대 이어온 사진전' 성료

글과 사진: 김찬석 전남주재기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북지회 이창희 자문은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3대 이어온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창희 자문은 60여 년간 사진 활동에 헌신해 왔으며, 최근에는 과학적 기법을 접목한 초현실주의 사진예술로 새로운 창작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철, 이창희, 이은상으로 이어지는 3대의 사진예술 역정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과거에 사용했던 4×5, 5×7, 8×10, 4절 출사기와 더불어, 노블렉스·핫셀·마이아 6×12 등 120여 종의 카메라 및 다양한 기자재를 공개해, 우리나라 사진사의 귀중한 자료를 관람객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세대를 이어온 사진가의 열정과 시대별 사진 기술의 변화를 조망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창희 자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축하케익 절단하는 모습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북지회 회원들



제주지회뉴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방문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전병재)는 지난 8월 13일(수) 오후 7시,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이창훈)를 방문하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병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관광지역 제주지회 회원님들의 얼굴을 보니 반갑고 분위기가 매우 좋다”며 “제주에 일주일 정도 머무르며 회원 여러분의 업소를 직접 찾아 뵙고 교류의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와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진진흥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협회 월간지(사단지) 발행과 관련해 “월간지는 협회와 전국 지회의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매체”라며 “특히 지회별 뉴스란이 공란으로 남지 않도록 각 지회가 지역 행사와 소식을 꼭 수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주지회 방문을 통해 전 회장은 “국제프로사진 세미나를 앞두고 전국 16개 지회를 모두 방문하게 되어 마음이 흡족하다”며 “회원님들의 사업 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 평창에서 열릴 세미나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주지회 회원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주도, 플란치과와의 협력으로 회원 복지 확대”

플란치과의 우수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경기지회와 인천광역시지회의 지회장들과 협의하여 연수대회에서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들에게 특별 제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연수대회에서 플란치과 장인진 총괄이사가 직접 발표한 협회원 특별 제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플란치과 소개

- 전문 분야 : 임플란트 전문 치과
(국내 수술 건수의 다수 점유)
- 지점 현황 : 전국 8개 지점 (강남, 인천, 수원, 일산 등)
운영 및 연내 대구, 울산점 추가 오픈 예정
- 특징 :
 - o 배우 정보석이 홍보 모델로 활동
 - o 전 지점 병원급 운영 및 수술 전문 원장으로 구성
 - o 타 병원에서 의뢰하는 고난도 케이스 전문 응급지정 병원
 - o 자체 연구소에서 '플란임플란트' 직접제조및해외수출

나) 협회원 특별 제휴 혜택

- 적용 대상 : 협회 회원 본인, 직계가족, 지인, 친척까지
모두 동일 혜택 적용
- 임플란트 비용 (최대 49% 할인):
 - o 메가젠 : 33만원 (정상가 75만원)
 - o 오스템 : 45만원 (정상가 90~110만원)
 - o 위 금액은 플란치과 정규직원 복지 혜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무료 검진 및 추가 혜택:
 - o 무료 정밀 진단 : 10만원 상당의 3D CT 촬영 및 3만원 상당의 검진비 전액 지원
 - o 방문 선물 : 내원 검진 시 3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전용 칫솔 세트 증정
 - o 기간 한정 혜택 : 다음 달까지 치료 시작 시, 5만원 상당의 잇몸 영양제 '덴피정' 1개월분 추가 증정
- 기타 진료 혜택 : 충치 치료(크라운, 인레이 등) 시 20~30% 할인

다) 플란치과의 기술력 및 치료 철학

광고 비용을 줄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입소문'과 '소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뼈 이식을 통한 긴 임플란트 식립 등 고난도 기술력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된 케이스도 대부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 025.06.20.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김학규 인천광역시지회장, 플란치과 부평점 박성호원장



▲ 2025.07.20. 이정주 경기도 지회장 과 플란치과 장인진 총괄이사 업무협약

한국프로사진협회 발전기금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사진가의 길은 시간 위에 쌓입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모든 전문 사진가의 권익과 사진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울림이 되어, 사진시장의 미래를 밝힙니다.

발전기금은 협회의 재정운용과 교육, 전시 및 출판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보내실곳 : (농협은행) 301-0127-4083-41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를 후원해 주신 분 (가나다순, 단위 원)

김귀홍	100,000
서호경	100,000
신병호	100,000
심준섭	100,000
이승호	1,000,000
이영익	100,000
이재범	100,000
이한우	100,000
장광동	100,000
조구성	100,000



70년의 서터, 미래를 보다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OMEX® 포맥스 고객 상담실 : 02 511 9904 www.fomex.co.kr
강남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 727 본사/연구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서울시우수기업 (The Seoul Best Company of 2024) 글로벌 강소기업 INNOBIZ 기술혁신성장소기업